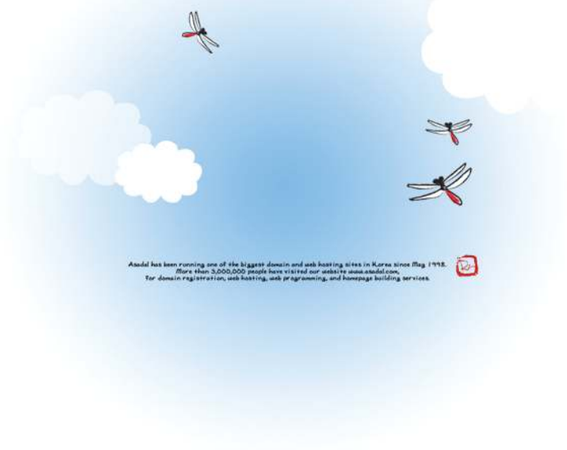
정부3.0

2016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가을호(Vol.5)

e - 날씨유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34142) 383, Daehak-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

제 2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상작 _ 하늘공원 빛내림(이인창)

CONTENTS

2016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가을호(Vol.5)

INTRO

04 / 정부3.0이란?

WEATHER

06 / 대전 · 세종 · 충남지방 지난 여름철(6월~8월) 기후특성
08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1 - 하루 기온의 극과 극 - 일교차
10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2 - 가을에 대한 단상
12 / 예보상식 - 눈으로 떠나는 가을여행(단풍)

SPECIAL ISSUE

14 / 2016년 3분기 문화체험 - 호남의 금강산 '내장산'과 한옥마을 '전주'
16 / 한국의 100대산 완등에 이어 백두대간 완주!! 백두대간 종주기
18 / 대전지방기상청의 자랑 - 브런치 기후카페 2기 활동기

REPORT

20 /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30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SERVICE

31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32 / 대전지방기상청 체험학습 신청방법
33 / 2016년 대전지방기상청 교육 일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 행 일 자 2016년 10월 14일
발 행 처 대전지방기상청
편 집 장 서장원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조현지(기획운영과), 최상희(예보과), 홍성근(관측과), 안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민희(기후서비스과), 김연직(예보과), 박난수(기후서비스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박지혜(홍성기상대), 박창용(기후서비스과), 박형진(기후서비스과), 배철호(기후서비스과)
옥순기(기후서비스과), 이인성(예보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4-5

INTRO

정부3.0이란?

정부3.0이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으로서 정책의 전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개혁을 의미합니다.

과거정부와 달라진 점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국민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정부3.0 기본계획의 10대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의 개방 · 공유로 참여와 소통을 적극 확대하여 정부신뢰를 제고

- 공공정보 적극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 · 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과제를 잘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실현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인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공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행정자치부 www.gov30.go.kr

6-7

대전 · 세종 · 충남지방

지난 여름철(6월~8월) 기후특성

각종 기상기록 갈아치운 2016년 여름철.

○ 여름철 평균기온은 24.7℃로 평년(23.7℃)보다 1.0℃ 높아, 1973년 이래 최고 5위를 기록하였음
- 6월, 7월, 8월 평균기온은 22.2℃, 25.5℃, 26.5℃로 평년(6월 21.4℃, 7월 24.6℃, 8월 25.2℃)보다 0.8℃, 0.9℃, 1.3℃ 높았음

※8월 폭염일수(17.2일), 평균최고기온(32.1℃) 역대 최고 1위 경신

평년보다 높은 기온,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 여름철 대전 · 세종 · 충남 강수량은 414.5㎜로 평년(724.8㎜)대비 57%로 1973년 이래 최소 5위를 기록하였음
- 6월 강수량은 46.7㎜로 평년(149.6㎜)보다 적었고, 7월에는 295.3㎜로평년(287.0㎜)과 비슷하였으며, 8월에는 52.0㎜로 평년(288.2㎜)보다 적었음

※8월 강수량(52.0mm), 강수일수(8.0일) 역대 최소 1위 경신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균기온(최고) (℃)	1994년	25.4	2013년	25.1	2012년	24.8	2010년	24.8	**2016년**	**24.7**
평균최고기온(최고) (℃)	1994년	31.0	**2016년**	**29.9**	2013년	29.8	1978년	29.6	2010년	29.5
폭염일수(최고) (일)	1994년	29.8	**2016년**	**20.6**	1996년	17.4	1990년	15.8	1985년	15.0
강수량(최소) (mm)	2015년	288.1	1973년	405.4	1982년	407.5	1977년	430.2	**2016년**	**414.5**
강수일수(최소) (일)	1994년	23.4	1977년	25.4	1997년	26.6	**2016년**	**29.2**	1983년	29.6

표 1. 1973년 이래 대전 · 세종 · 충남 지역평균의 여름철 순위 현황

장마특성

○ 올해 대전 · 세종 · 충남지방을 포함한 중부지방 장마는 6월 24일에 시작되어 7월 30일에 비가 내린 후 종료되었음

○ 장마기간은 제주도 및 남부지방이 29일로 평년보다 짧았으며, 대전 · 세종 · 충남지방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37일로 평년보다 길었음

장마특성

지역	올해			평년		
	시작	종료	기간(일)	시작	종료	기간(일)
중부지방	**6.24.**	**7.30.**	**37**	**6.24.~25.**	**7.24.~25.**	**32**
남부지방	6.18.	7.16.	29	6.23.	7.23.~24.	32
제주도	6.18.	7.16.	29	6.19.~20.	7.20.~21.	32

표 2. 올해(2016년)와 평년(1981~2010년)의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 및 기간

지역	올해		평년	
	강수일수(일)	강수량(㎜)	강수일수(일)	강수량(㎜)
대전·세종·충남	**16.2**	**346.6**	**16.9**	**335.1**
중부지방	**16.5**	**398.2**	**17.2**	**366.4**
남부지방	15.8	283.8	17.1	348.6
제주도	18.0	347.4	18.3	398.6
전국	16.1	332.1	17.1	356.1

표 3. 올해(2016년)와 평년(1981~2010년)의 장마기간 강수일수 및 강수량

※ 전국 : 45개 지점 평균(중부 19개 지점, 남부 26개 지점)
※ 대전 · 세종 · 충남 : 5개 지점 평균(서산, 천안, 보령, 부여, 금산)

태풍현황

○ 올해 태풍은 현재(10.17.)까지 22개 생성 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개였음(차바, CHABA).

○ 올해 첫 태풍인 '네파탁(NEPARTAK)'은 7월 3일 9시 괌 남쪽 해상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1951년 이후 두 번째로 늦게 발생한 태풍임.

※가장 늦게 발생한 태풍은 1998년 '니콜(NICHOLE)'로서 7월 9일에 발생하였음

박난수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 제18호 태풍 차바(CHABA)는 10월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중 역대 가장 강한 태풍으로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례적으로 북상함.

○ 태풍에 동반된 수증기가 강한 바람과 함께 지형과 충돌하면서 제주산간에는 500mm이상, 울산 부근은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음.

8-9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 #1

하루 기온의 극과 극 - 일교차

일교차란, 하루의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이

한낮의 태양은 그 마지막 힘을 내고 있는 듯 따갑게 느껴지지만 9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보면, 불과 열흘 전만 하더라도 더워서 저 멀리 치워버렸던 이불을 어느새 꼭 덮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가을이 우리 앞에 이미 성큼 다가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일기예보나 날씨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접하는 멘트가 있다.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10도 내외의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또한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은 기상캐스터의 끝맺음 단골 인사다. 여기서 우리는 흔하게 듣지만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일교차' 이다.

일교차(日較差, diurnal range)란 하루의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이를 말한다.
대체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차이가 나는 시기를 환절기라고 부르며 이러한 환절기에는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신체 리듬 역시 변화가 생긴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지므로 감기에 잘 걸리게 된다.

일교차는 낮의 가열과 밤의 냉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대기 중의 습도와 바람 등의 영향을 받는다. 습도가 높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있어 흐린 날에는 구름이 일사를 차단하기 때문에 지표면이 쉽게 가열되지 않아 일교차가 작지만, 습도가 낮고 맑은 날에는 에너지가 대기로 쉽게 전달되므로 변화의 폭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보통 지형적인 영향으로 해안이냐 내륙이냐에 따라서 일교차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내륙 지역이 해안지역보다 일사로 인한 지표면 가열이 쉽기 때문에 일교차가 더 크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기상청은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홈페이지 '날씨 〉 생활과 산업 〉 지수별 〉 보건기상지수 〉 감기가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감기가능지수란' 기상조건에 따른 감기 발생 가능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감기 환자수와 주요 기상요소의 객관성 있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개발하였다.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생활습관도 필요하지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보건기상지수들도 참고하여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금강일보 〉 사회 〉 [극과 극 기후리포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제 2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상작 _ 서리꽃(정철원)

10-11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 #2

가을에 대한 단상

기상청, 매년9월부터이듬해4월까지 각종 보건지수를 생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환절기에는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날씨는 점차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게 된다.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해지면서 감기와 비염 같은 유행성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서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각종 보건지수를 생산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다. 발표되는 보건지수는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기상조건과 계절별 요인 등의 기상 이외의 요소에 따른 발생 가능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서,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뇌졸중 가능지수, 피부질환 가능지수,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있다.

특히, 감기환자 수는 가을부터 증가해서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실내생활이 많아져 바이러스 전파 확률이 높아지는 겨울에 가장 많고, 봄까지 지속된다.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급격한 기온변화는 신체의 체온유지를 방해하고, 겨울철에는 감기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야외활동이 많은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커서 감기환자가 증가하면서 전염력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건조한 날씨는 인체의 코 점막을 건조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감기나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물론 면역력 증진시키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음식과 차를 통해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출 후 양치질과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가을이 오면 산과 들에 오곡백과가 넘쳐나서 보는 사람의 마음도 저절로 넉넉해진다.
과일뿐만 아니라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단풍은 봄꽃과는 다른 느낌으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한다. 또한, 하늘은 더없이 높아지고 푸르러서 자연스레 밖으로 나가고 싶어진다. 그렇지만 날씨가 건조해지고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산불이 발생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신경을 써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기상청에서는 산불과 관련하여 대기의 건조정도를 참고하여 전조특보를 발표하여 산불 등 화재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중도일보 〉 오피니언 〉 [열린마당]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환경이 좋아져서 독서를 하기위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을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책 한권 정도는 읽고 싶어진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더위 때문에 미뤄뒀던 아침운동도 새로 시작하고, 독서를 하면서 마음의양식을 비축하여 몸과 마음을 살찌우고 싶다.

눈으로 떠나는 가을여행(단풍)

단풍이란 무엇일까?

단풍이란 기후의 변화로 식물의 녹색 잎이 빨간색, 노랑색, 갈색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단풍은 가을에 낙엽 직전에 일어나지만 초봄에 새로 싹트는 어린 잎에서도 볼 수 있다.

가을의 대표적인 단풍 식물은 단풍나무과 단풍나무속에 속하는 식물들이나, 진달래과 · 노박덩굴과 · 옻나무과 · 포도과 등에도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 것이 많다. 또 초봄에는 남천 등의 단풍도 아름답다. 황엽으로는 가을의 은행나무가 대표적인데, 느릅나무 · 포플러 · 고로쇠나무 · 피나무 · 버즘나무 등도 들 수 있다. 초봄에 새로 싹트는 어린잎은 거의 다 황엽이지만 금방 엽록소가 생겨 신록으로 변하므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단풍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단풍의 색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엽록소의 녹색에 가려있던 것이다.
잎의 세포에는 평균 50~200여개의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엽록체 알갱이가 들어있다. 녹색식물의 잎이 녹색인 것은 "엽록체가 녹색을 띠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 말도 맞다. 엽록체에는 싱그러운 원초의 색소인 엽록소가 한가득 들어 있다. 엽록소는 다른 색은 모두 다 흡수하거나 투과하고 녹색만 반사하기에 잎이 녹색이다.

더위가 물러나고 날씨가 썰렁해지면서 세포 속 엽록체에 켜켜이 틀어박혀있던 광합성의 본체인 녹색엽록소가 파괴되고 그것에 가려있던 카로틴, 크산토필, 타닌 같은 색소들(모두 광합성 보조색소)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잎에 물이 든다. 이런 색소는 가을에 느닷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봄여름 내내 짙은 엽록소 그늘에 묻혀 있다가 온도에 약한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여 가을단풍은 먼저 추워지는 산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박보연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이런 색소는 가을에 느닷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봄여름 내내 짙은 엽록소 그늘에 묻혀 있다가
온도에 약한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2016년 3분기 문화체험

호남의 금강산 '내장산'과 한옥마을 '전주'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해 여름을 보내고, 9월의 어느 가을날 평소 절친하던 입사 동기들과 푸근한 인상의 이상돈 주임님과 함께 문화체험을 다녀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겼다. 장소에 대해 열렬한 토의 끝에 각종 문화유적이 위치해 있어 볼거리도 많고,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먹거리도 있는 전주에 다녀오기로 했다. 또한 정읍에 들러 현재 시범운영중인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을 견학하고,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내장산을 산책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였다.

첫째 날,

전주 한옥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한옥과 함께 젊은 관광객의 이목을 끄는 트렌디한 상점들도 곳곳에 위치해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특히 최근에 SNS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하면서, 한옥마을은 더 이상 고리타분한 문화유적지가 아닌 친근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옥마을을 거닐고 있노라니, 형형색색의 한복들을 입은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조화롭고 아름다워서 우리의 전통 의류 문화가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먼저 경기전을 관람하였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곳이며, 경기전 내에는 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고가 남아있어 역사적인 볼거리가 많은 곳이었다. 전주사고에서 실록의 편찬 방법과 임진왜란 당시 실록을 보존하기 위한 선조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최근 일부 연예인이 역사의식 부족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역사의식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만 하더라도 입사 전 한국사를 공부하긴 했지만, 점수를 위해 암기 위주로 공부한 탓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안다는 말처럼, 선조의 지혜를 받들어 끊임없이 역사를 공부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통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옥마을 내에는 다양한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최명희 문학관이었다. 최명희 대하소설 '혼불'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감명 깊게 읽은 바가 있는데, 정말이지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다. 최명희 문학관에서 필사도 직접 하며 다시금 그때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그곳에서 본 영상에서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최명희 작가의 한마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17년이라는 시간을 '혼불'을 쓰는 데에 보내면서, 작품을 쓰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었다. 앞으로 그러한 열정적인 자세를 마음에 새기고 근무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김예슬
대전지방기상청 관측과

저녁을 먹고 남부시장을 구경했다. 남부시장은 그 자체로도 넓고 구경거리가 많은 시장이지만, 좀 더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청년몰이 위치하고 있다. 청년몰은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기존에 시장의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청년 사업가들을 모집하여 아이디어가 가득한 상점들을 정착시킨 곳이다.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가 있기 때문에 여행까지 와서 전통 시장을 방문할 일은 좀처럼 없었는데, 눈길을 끄는 인테리어와 상품으로 상점들을 꾸며놓고 공연까지 하니 정말이지 프로젝트 이름대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듯 했다.

둘째 날,

다음날엔 아침으로 전주의 명물인 콩나물국밥을 먹고 국립전북기상과학관으로 향했다. 이재호 주무관의 친절한 안내로 과학관 내부를 상세히 돌아볼 수 있었다. 천체 투영실에서 돔스크린을 통해 은하계와 별자리를 살펴보고, 다양한 체험 전시실을 돌아보며 간접적인 교육체험도 하고, 천체 관측실에서 태양의 코로나도 직접 볼 수 있었다. 아직 설치 공사 중인 부분이 있었지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컨텐츠가 다양하고 수준이 높아 놀랐다. 기상과학관이지만, 기상업무 체험 뿐 아니라 천체 관측 체험도 할 수 있어 내년 정식 개관이 아주 기대되었다.

마지막으로 내장산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내장산은 단풍으로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른 시기의 녹음도 싱그럽고 예뻤다. 내장산 케이블카는 그날 운영을 하지 않아 탈 수 없었지만, 덕분에 자연관찰로를 따라 산내음 맡으며 즐겁게 산책할 수 있었다. 내장산을 가볍게 한 바퀴 돌고는 그냥 가기가 아쉬워서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도 들렀다. 내부에 식물원과 단풍원, 동화의 숲 등이 조성되어 있어 단풍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단풍의 절경을 다시금 고이고이 담아가기에 좋은 곳이었다. 공원을 산책하며 짧지만 알차고 즐거웠던 1박 2일간의 문화체험을 마무리하였다.

출장이긴 했지만, 자유롭게 일정을 세워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니 정말 몸도 마음도 힐링 되는 듯 했다. 원래 친했던 입사동기들도 있었고, 이번 문화체험으로 처음 뵙게 된 직원분도 있었지만, 같은 직장이라는 공감대 하에서 금세 친해져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지원하기를 적극 추천한다.

16-17

한국의 100대산 완등에 이어 백두대간 완주!!

백두대간 종주기

야호! 정말 꿈만 같은 일이다.

한국의 100대산 완등에 이어 백두대간을 드디어 완주했다. 눈을 감으면 86개의 산, 110개의 봉, 42개의 령, 90개의 재 · 치 · 고개 등을 타고 넘나들었던 산하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저 멀리 보이는 정상을 바라보며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끝내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길을 따라 갔다.

*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부근에서 서쪽으로 기울어 남쪽 내륙의 지리산에 이르러 우리나라 땅의 근골을 이루는 거대한 산줄기의 옛 이름이다. 총길이가 1625km이고 지리산에서 진부령까지의 남한 구간만 해도 실측거리가 약 740km에 이른다.

백두대간의 감동

산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3년부터이며 32회에 걸쳐 완주하였고, 산행시간은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였다. 근무로 인하여 산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지 못해 남진과 북진을 번갈아가며 했고, 구간도 띄엄띄엄했으며 강원도 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 산악회를 따라 산행을 하다 보니 중복되는 구간이 많았다. 산행은 보통 늦은 밤에 출발하여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 모두가 잠든 꼭두새벽에 다시 시작된다. 이슬이 촉촉이 젖은 대지를 밟으며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가다 보면 언제 봐도 신비스런 해돋이와 깊고 넓은 운해가 발아래 펼쳐있다. 내가 구름 위를 걷는 신선이 된 듯 몸을 휘감고 도는 운해가 온 마음으로 느껴진다.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정상에 오르다

계절마다 다른 따뜻함, 시원함, 상쾌함, 그리고 칼바람과 함께 코끝과 눈썹에 고드름이 달리고 땀이 이마에서 발끝까지 내려와도 어둠과 안개 속에서 한줄기의 바람이 나를 감싸고 돌아가는 그 느낌이 좋았다. 또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모진 비바람을 맞고 견디며 정상에 우뚝 서서 나를 반기는 정상석에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떨어지는 낙엽과 눈으로 뒤덮인 산하는 시리고 부드럽게 발끝을 감싸고, 직벽을 통과할 때는 한 발 한 발에 긴장감이 서렸다. 고된 산행길에 발과 무릎이 아파오며 물 마실 힘조차 없을 때 마시는 한 모금의 물은 정말 일품이라 잊을 수가 없다.

이인성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계절마다 산과 함께하다

충분한 식수를 준비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시기가 바로 봄이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영롱한 이슬을 보고 이름 모를 새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해발 1,000m가 넘는 강원도 능선의 초록빛 물결 숲 속은 무어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준다. 또한, 푸른 초원위의 선자령 구간을 지날 때는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마신 물이 많을까 흘린 땀이 더 많을까, 헤아리며 산 위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낸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가을 햇살에 산길이 화려한 붉은색으로 물들고 오색단풍이 비처럼 떨어져 내려 나목 아래는 낙엽으로 빈틈없이 수놓은 카펫이 깔려 있는 듯하다. 고요한 산길을 낙엽 밟는 소리와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낙엽 밑에 숨어있는 얼음에 엉덩방아를 찧고 만다. 겨울산행은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가급적 짧은 거리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산행해야 한다. 난간의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보다 가파르고 높은 절벽을 내려가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긴장감 속에서 산행을 하게 된다.

산행을 하며 인생을 배우다

각시풀이 융단같이 펼쳐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투구꽃, 금강초롱, 애기앉은부채, 동자꽃의 전설과 힘들 때 항상 옷어주는 야생화의 향기에 취해 정상석 옆에 서서 인증 사진을 찍을 때가 가장 좋았다. 산행 중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 숨 막히는 더위와 아찔한 절벽과 같은 오르막 산행보다 알바(대간 길을 잃어 버려 다른 길로 산행하는 일)할 때의 한숨만 나오고 힘이 완전히 빠진 채로 다시 대간 길을 찾아가는 산행이 가장 힘들었다. 산행을 잘하시는 분들은 오르막길은 걸어가고 능선은 뛰어가며 하산은 날아서 하며, 짧은 시간에 주파하지만 오르막은 기어서 하산은 걸어서 가더라도 사고없이 안전한 산행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백두대간과 마침표

백두대간을 완주하고 나니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것이 시원섭섭하다는 말은 이럴 때 제일 적합한 말인 것 같다. 휴전선을 넘어 금강산에서 백두산까지 백두대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무사히 완주할 수 있게 지켜주신 산신령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먼 길을 동행해준 가족과 종주기념 깜짝 파티까지 마련해준 팀원에게도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친다.

* 하늘사랑 2016년 9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의 자랑
브런치 기후카페 2기 활동기

대전청의 자랑 '브런치 기후카페 2기'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1기 때 많이 부족했던 점들과 어머니들의 피드백을 자양분 삼아 이번 2기 활동팀들과는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부모(주로 어머니)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브런치 기후카페이지만 항상 여름방학이 되면 어머니들은 말씀 하십니다. "선생님~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체험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기후변화와 관련되면 좋을 것 같고 교통비는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기상청에서 같이 가주시기만 해도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요. 이런 부탁을 어찌 단칼에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ICEC 국제기후환경센터 방문

대전에서 광주까지 이동거리만 2시간인데 너무 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했었어요. 무척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는 것을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사전 협조 아래 진행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 가득한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매번 보는 앙상한 북극곰이지만 볼 때마다 안쓰러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직도 동심은 아직도 순수하구나, 북극곰을 위해서 분리수거와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는 아이들을 보며 어른인 저 역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교육관 곳곳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듣고 활동지를 풀어보는 '출동, 초록특공대!'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였는데, 초등학생 눈높이에 딱 맞춘 설명과 함께 그 설명을 열심히 듣지 않으면 풀 수 없는 활동지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제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꼼꼼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 문제를 풀어내면 '기후' 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한 국제기후환경센터 측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쪽 벽면이 태양열 에너지 판이 설치되어있었고 그 아래 지하로 내려가면 그와 관련된 전기 생산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직접 태양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생산량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쓰이는지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어머니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태양열 판을 업고 있는 거북이... 자그마한 장난감 거북이 위에 태양열 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태양열 판이 빛을 받으면 에너지가 생산되어 거북이가 움직이는데 자연의 힘, 태양의 힘이 얼마나 큰 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거북선은 태양열 판이 더 많이 붙어 있었는데 수조 안에서 어찌나 힘차게 물살을 가르던지...

그리고 가장 인기가 좋았던 전기자동차 시승식!
말로만 듣던, 혹은 TV에서만 보던 전기자동차가 눈앞에 나타나자 어른, 아이 모두 "우와~"라는 감탄사를 절로 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시승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이 차량에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조차 구분이 안갈만큼 '소음 제로 공해 제로'라고 합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에어콘을 쌩쌩 틀고도 잘 나가는 전기자동차를 타보면서 아마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와~ 나도 하나 갖고 싶다.' 고요. 이런 자동차가 국민 모두에게 어서 빨리 보급되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여름! 불청객인 벌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천연 모기(진드기) 퇴치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물질과 다른 물질을 정확하게 넣으면 '향기 굿~ 효과 굿~' 의 퇴치제가 되는데요.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인가 봅니다. 선생님이 "자~ 우리 친구들 60방울을 넣으면 되요."라는 말씀에 다같이 한목소리로 하나, 둘, 셋…
"야아~ 더 넣으면 안돼. 선생님께서 60방울만 넣으라고 하셨단 말이야. 어떡하지 우리? 우리 것은 효과없는 거 아니야?" 하며 울상을 짓는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너무 귀엽죠? 이에 반해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대중으로 휙휙~ 쿨하십니다요!

장거리를 이동하여 간 곳이라 혹시 피곤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는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아이들은 모기 퇴치제를 뿌려가며 엄마에게 자랑을 하며 하하호호 신나게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치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어머니들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브런치 기후 카페 정말 좋은 활동이라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수없이 해주셨고요. 아이들의 교육을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직접 함께해주는 우리 엄마. 이런 적극적이고 멋진 어머니들이 계셔서 저희 대전지방기상청의 '브런치 기후 카페'는 빛이 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7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서장원 청장 취임식 (7.1.)

2016년 7월 1일 대전청 3층 강당에서 제20대 서장원 대전지방기상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서장원 청장은 취임사에서 직원간의 소통을 강조하여 대전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상관측보조원 현장직무 교육 (7.4.~7.24.)

홍성기상대는 기상관측보조원의 투입에 따라 관측업무에 대한 사전 이해 및 전문지식 증진을 위해 관측보조원들의 현장직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관측보조원들은 3주간 관측현업에 배치되어 체계적인 현업 적응훈련과 직무교육을 이수하였고, 7월25일부터 정식으로 교대근무를 시작하였다. 앞으로 관측업무의 효율화 및 고품질의 관측자료 생산을 기대해 본다.

2016년 제3회 릴레이 명사특강 운영 (7.4.)

7월 4일 대전청 3층 강당에서 제3회 릴레이 명사특강을 운영 하였다. 이번 릴레이 명사특강은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직장 연계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바쁜 업무로 인해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듣지 못하는 직장인 부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나우 심리상담센터 방미나 대표가 '영화로 기르는 자녀와의 감성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고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기후변화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7.7.)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6 기후변화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대전 · 세종 · 충남 지역의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전문가의 강연과 함께 청중들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크쇼도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에코그린 콘서트', '기후변화 스마트 퀴즈대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중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해양기상정보 7월 교육 및 홍보 실시 (7.7.)

대전지방기상청은 7월 7일 수협관계자와 어업인 21명을 대상으로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연 · 근해 및 원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비롯, 관련 종사자에게 모바일 웹, 무선FAX, 음성방송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해양기상정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수협에서 주최하는 어업인 안전 교육에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기상청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선박 안전운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지방기상청과 함께 하는「퀴즈로 배우는 기후변화 이야기」오픈 (7.11.)

대전지방기상청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대국민 기후변화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7월부터 '퀴즈로 배우는 기후변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 페이스북을 통해 기상청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기후변화와 대한 내용을 퀴즈의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퀴즈 게시물에 정답 댓글 남기기로 참여할 수 있다.
(12월까지 매월 정답자 15명 추첨 경품 지급)

하계휴가철특별수송사전대책회의참석, 해양기상업무 홍보 (7.14.)

대전지방기상청은 7월 14일 2016년 하계 휴가철 특별수송 사전대책회의에 참석 하였다. 하계 휴가철 충청남도 연안여객선 운항 관련 유관기관의 특별수송 지원을 위한 안전대책 논의를 하였다. 또한, 7월 1일부터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해구별 예측정보'를 홍보하고, 날씨변화로 인한 해상의 변화로부터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관련 근무자를 위한 신속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에 협조하였다.

「교실 속 빛나는 나의 꿈 찾기 프로젝트」운영 (7.12./7.15.)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진로교육법'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이 의무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전지방기상청은 선제적, 적극적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다각화를 실행하였으며 전문 직업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경험을 나누는 '교실 속 빛나는 나의 꿈 찾기'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직업을 소개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미래의 기상인이 될 청소년에게 정보 공유는 물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진정한 멘토가 되길 바란다.

7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16년 맞춤형 기상정보 개선 워크숍 개최 (7.14~15.)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민의 행복 · 복지 · 안전을 위한 기상예측과 기상재해 저감 등 융 · 복합 시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기상서비스 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맞춤형 기상 정보의 개선 방안과 앞으로 개발해야할 서비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에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실현 가능한 기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측과 사무실 확장 (7.18.)

관측과 사무실의 협소에 따른 직원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대전청 관측과에서 사무실 확장공사 및 근무환경 개선 공사를 2016년 7월 18일에 실시하였다. 개선된 근무환경에 관측과의 모든 직원이 만족하고 있으며, 개선된 근무환경 만큼 관측업무도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연구개발과제 연구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전문 교육 실시 (7.20.~8.31. 매주 수요일)

대전지방기상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연구개발과제 연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지혜 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 연구원 및 관심직원을 대상으로 R프로그래밍, Python 프로그래밍 활용법을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으로 2016년도 연구개발과제 3차원 집중관측을 통한 충남서해안 국지 해륙풍 연구의 수행능력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법 교육 실시 (7.20.)

대전지방기상청은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방재담당자 12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인별 PC를 활용한 실습위주로 위험기상감시 및 수요자맞춤형 통보 활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으로 지방자치단체 방재담당자의 기상 정보의 이해 및 활용도를 높여 방재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서벽지에도 불어라~ 꿈바람!」 운영 (7.21.)

대도시 중심의 교육인프라 집중현상으로 상대적 교육 소외 현상이 발행하여 관할구역인 충남지역의 학생들은 기상기후 교육 및 진로체험의 기회가 매우 적다. 기상상황에 따라 뱃길이 시시각각 변하는 섬마을 학생들은 더욱 기상에 관한 호기심이 더 많을거라는 생각에 보령시 원산도에 있는 자그마한 '원산초등학교'를 찾아가게 되었다. 도서지역에서도 기상청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이를 계기로 미래의 기상인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부여군 호우 영향예보를 위한 담당자 간담회 개최 (7.21.)

유관기관 협업으로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체계 정립 및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예보과에서는 7월 21일 부여군 호우 영향예보를 위한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위한 부여군 호우 임계값 설정 및 위험 수준 단계별 조치사항, 서비스 제공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의를 하여 9월 1일 부터 시행될 부여군 호우 영향예보 서비스에 박차를 가했다.

하계특별교통대책기간 기상정보 제공 (7.22.~8.7.)

대전지방기상청은 2016년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7.22.~8.7.)중 관할 예보구역 내 교통 · 방재관련기관, 언론사 등에 수요자 중심의 기상정보를 지원하였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교통 대책 수립 및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위험기상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하여 교통안전 확보 및 기상재해예방에 기여하였다.

남재철 차장 대전지방기상청 초도방문 (7.27.)

지난 7월 27일 남재철 차장이 대전지방기상청을 방문했다. 대전청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함께 활기차고 행복한 기상청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앞서 남 차장은 여름철 자연 재해 대책기간을 맞아 금감홍수통제소와 대전시 홍수취약지역을 직접 방문 하고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기상정보 지원을 당부했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8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주니어닥터와 연계한「여름방학 기상기후체험교실」운영 (7~8월)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주니어닥터 프로그램과 융합한 기상기후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뜨거운 여름 매주 수요일 4회 총 112명의 학생들이 '기상이가 들려주는 날씨 이야기'라는 주제로 일기 예보의 생산과정을 이야기하고 기초 자료가 되는 기상관측 팝업북을 통해 관측장비도 함께 알아가는 즐거운 체험교실이 되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우리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일기예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상반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6~8월)

대전지방기상청은 활기찬 직장문화 개선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문화가 있는 날'을 6~8월 간 운영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은 부서 별로 문화예술이나 스포츠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대전지방기상청 체육회'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하였다. 직원들이 함께 영화를 보면서 공감대와 서로의 느낀점을 공유하고 야구경기를 관람하면서 함께 응원하고 안타까워 하는 등 '문화'를 통해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상체험교실 운영 (8.4.)

홍성기상대는 홍성 서부초등학교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기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일기도 그리기, 풍향 · 풍속 · 풍기대 만들기 등 생생한 기상업무 체험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기상과학 분야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기상이와 환경이가 함께 고민하는 기후변화」운영 (8.4.)

우리지역의 기후변화 관련기관 간 상생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7개 기관의 담당자들이 지난 4월 '기후변화 관련기관 소통한마당'에 참석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전 환경운동연합]과 협업한 '기상이와 환경이가 함께 고민하는 기후변화'를 운영하게 되었다. 대전 대성중·환경동아리 20여명과 함께 기상과학체험공원을 활용한 생태 놀이터를 만드는 등 기후화 환경을 함께 접목한 활동이 되었다. 대전청으로 올라오는 길목마다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놓은 새집과 생태 놀이터를 만날 수 있다.

전국체전 준비담당자의 기상정보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방재기상 정보 시스템 교육 실시 (8.9.)

대전지방기상청은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 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체전준비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9일 클라우드 방재기상 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회 기간 및 준비기간 동안 날씨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사용 및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장별 기상특성과 활용 가능한 기상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이를 계기로 미래의 기상인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홍성기상대 청사 및 지원동 신축공사 착공 (8.16.)

홍성기상대는 201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착공에 들어갔다. 신청사는 홍성군 내포신도시 신경리 부지 10,983㎡에 건축연면적 1,832㎡로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향후 충남도청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홍성기상대의 기상 및 방재업무의 효율적 업무 수행과 활약을 기대해본다.

국내외여객선항로별해양기상정보서비스를위한유관기관방문 (8.18.)

대전지방기상청은 8월 18일 여객선 항로별 해양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해 선박안전 기술공단,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였다. 해양기상업무 소개 및 대국민 해양기상 서비스 안내를 하였으며, 기상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여객선 항로별 해양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한 운항정보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번 방문으로 해양기상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였고, 향후 업무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연구용역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8.19.)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 및 FTA 확대 등으로 농업의 취약성이 심해지고 있어 이러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천안 팥 재배를 위한 기상정보 서비스 개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 자리에서는 관련기관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수요자 위주의 성과를 도출하고 빅데이터 기반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로 앞으로 천안 팥 재배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8월~9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16년 지역축제 기상기후체험 홍보부스 운영 (8.19.)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과학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목적으로 대전 · 세종 · 충남의 여러 지역축제에 기상기후체험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9일에는 홍성 '한국환경교육한마당' 행사에 참여 하였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홍보부스에 활기가 넘쳤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시물 관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 키트만들기, 태양열 조리기를 이용한 음식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방법을 알리고 기상청의 역할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정보
-폭염(최고기온, 열지수)과 온열질환 발생 분석-

▸ 시·군별 폭염취약분야를 점검하고, 타 분야의 정보를 융합하여 기초자체에 필요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정보 제공
▸ 정보 : 기상자료(최고기온, 열지수 등) + 보건자료(온열질환 신고현황)

□ 기온·열지수에 따른 온열환자 가능성 예측정보(천안) (2016. 8. 19. ~ 8. 21.)

구분	금(8/19)				토(8/20)								일(8/21)							
	15	18	21	24	3	6	9	12	15	18	21	24	3	6	9	12	15	18	21	24
열지수	41	37	37	32	30	26	31	36	36	35	37	31	28	25	32	37	38	37	31	27
	관심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낮음	낮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낮음	낮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낮음
기온(℃)	34	32	29	26	25	25	28	31	33	31	29	27	25	24	29	32	33	31	27	25
	매우 관심	관심	보통	낮음	낮음	낮음	보통	관심	매우 관심	보통	보통	낮음	낮음	낮음	보통	관심	매우 관심	관심	낮음	낮음
최고기온(℃)	34				33								33							

※ 위 지수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6년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정보 시범서비스 실시(8월)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지역기상기후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분야의 정보를 결합하여 지난 8월 2일부터 19일까지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정보 '폭염과 온열질환자 분석'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천안시와 홍성군을 대상으로 온열환자 가능성 예측정보, 열지수 및 최고기온자료 등을 총 6회 제공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후 내년에 정식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 가을철 기상전망 언론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개최 (8.23.)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8월 23일, 장기예보 및 기상청 업무에 대한 언론의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도모하고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6년 가을철 기상전망 언론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가을철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겠으며, 9월과 1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10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 가을철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관 직업체험「커리어멘토」운영 (7~9월)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과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의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를 확대 ·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5회 109명의 학생들이 대전청을 방문한 가운데 2학기가 되면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선택을 앞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의 발굴,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토대청소 실시 (9.6.)

홍성기상대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토대청소 자율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위해 서산시 잠홍천 일대를 돌며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거하였다.

대전 동구지역 산불예방 기상정보 서비스

□ 지난주 대전 동구지역 산불관련 기상현황(8.19. ~ 8.25.)

지난주 대전지역은 누적강수량 16.8~39.6mm를 기록하였음. 26일 현재, 실효습도는 56~67%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강수 연속일수는 2일을 기록하고 있음.
8월 10일 이후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발령 중.

지점	누적 강수량(mm)	무강수 연속일수 (26일 기준)	습도(%) (26일 현재) 실효	평균	최저	산불위험등급 (8.26. 13:30현재) <산림청 자료>
세천 (동구)	16.8	2일	-	-	-	
문화 (중구)	39.6	2일	56	66	29	
장동 (대덕구)	18.3	2일	67	79	43	

지역기상기후 취약분야 산불관련 시범서비스 실시 (9월)

대전지방기상청은 산불관련 유관기관이 산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편익증진을 위해 9월부터 '대전 동구지역 맞춤형 산불 예방 기상 정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대전 동구 및 인근지역과 함께 대전 · 세종 · 충남 지역까지 습도, 강수량, 바람자료 등 다양한 산불관련 기상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산불 위험 등급 및 전망, 단기 및 중 · 장기 예보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201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까지 격주로 제공될 예정이며, 산불 조심기간 동안 에는 매주 제공될 예정이다.

추석 명절맞이 어려운 이웃 돕기 봉사활동 참여 (9.8.)

대전지방기상청은 봉사동호회 '사랑나눔회'는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유성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시설 '아담'에 방문,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대전청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이 '사랑나눔회'를 대표하여 쌀, 샴푸와 함께 성금 50만원을 아담에 전달하였고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 호우 위험 정보

부여군 호우영향 전망	◇ 종합 위험수준 해설 o 이번 예보기간에는 부여군에 호우로 인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오늘(1일)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와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일(2일)도 오후에 비 오다가 밤에 그침. ◇ 위험수준 조정 근거 5일 오후에 서쪽 기압골에 의해 110mm이상 올 확률이 1%로 예측되어 위험수준 주의(5단계)가 모의되었으나, 기압계 변동성이 크고 확률이 미미하여 위험단계를 하향조정하여 관심으로 하였음.

□ 시간대별 부여군 호우위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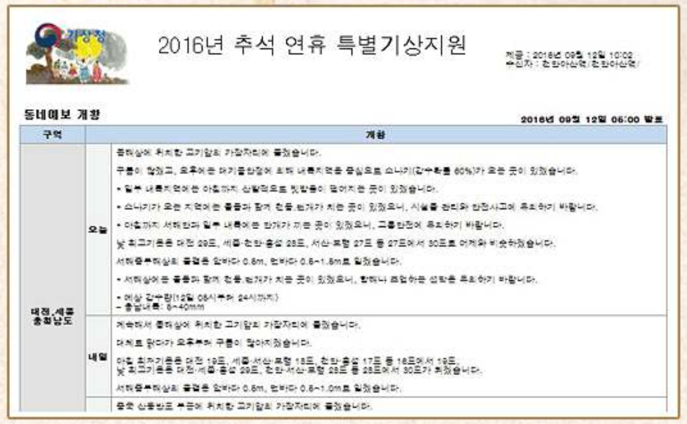
구분	오늘(1일)		내일(2일)				모레(3일)			
	15	21	3	9	15	21	3	9	15	21
위험수준										
6시간 누적강수량	5	-	-	-	10	6	-	-	-	-

2016년 부여군 호우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시행 (9~11월)

대전지방기상청은 부여군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우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부여군은 충청남도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금강하류에 인접한 저지대로 호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부여군청에 당일부터 향후 6일까지 호우 영향전망, 강수량 등 호우로 인한 위험수준 정보를 제공하여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9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기상지원

동네예보 개황

구역		개황
대전,세종 충청남도	오늘	[illegible]
	내일	[illegible]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기상정보 제공 (9.10.~18.)

대전지방기상청은 2016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13.~18.) 중 국립대전 현충원 현충과, 교통관계기관 등에 수요자 맞춤형 특별기상정보를 제공 하였다. 예보과는 추석 연휴기간 기상전망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관계기관에 신속 ·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원활한 귀성 · 귀경길 교통안전과 기상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서장원청장 홍성기상대 초도방문 (9.12.)

서장원 대전청장이 9월 12일 홍성기상대를 방문하였다. 신청사 신축공사 현장(홍성)을 직접 둘러보며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사(서산)로 이동하여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받았다. 또한 직원들과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지사와의 만남 (9.20.)

서장원 대전청장은 지난 9월 20일 충청남도청을 방문하였다. 이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각 기관장들은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서로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유지 ·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제3회 기상가족 건강지킴이 운영 (9.21.)

대전지방기상청은 직무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등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능률향상을 위해 9월 21일 제3회 기상가족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전청 3층 강당에서 이뤄진 이번 강의는 대전청 직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서구 체력인증센터 서태봉 강사를 초빙하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을 함께 배웠다.

홍성기상대,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활동 실시 (9.13.)

홍성기상대는 2016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9월13일(화) 서산시 음암면 인근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기상대 윤병일 사무운영주사보 명예퇴직 (9.19.)

홍성기상대의 윤병일 사무운영주사가 35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9월 19일 명예퇴임을 했다. 앞서 9월 12일 서장원 대전청장으로부터 명예퇴임 명패 및 행운의 열쇠 수여식이 있었다. 전 직원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윤병일 사무운영주사의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2016년「반부패 · 청렴 실천」다짐대회 개최 (9.26.)

대전지방기상청은 9월 26일 대전청장을 비롯한 대전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청 3층 강당에서 '반부패 · 청렴 실천' 다짐대회 및 기관장 청렴강의를 운영 하였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다짐 대회는 결의문 낭독식, 청장 및 각 과장의 결의문 서명식 그리고 대전청장의 청렴 직장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기상사진전 개최 (7월, 8월, 9월)

대전지방기상청은 2016년 기상기후사진전 순회 전시를 통해 기상에 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기후변화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7월 아산시청 전시를 시작으로 보령머드축제에 맞추어 대천역, 8월에 한밭도서관, 9월에는 장영실과학관과 대전 지족역에서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30

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8월 대전·세종·충남 관측기록

8 August

- **8. 6.** 8월 상순 일 최고기온 극값 경신
  - 금산 : 5위 35.6 (기존 : 35.5 / 1996. 8. 1.)

- **8. 20.** 전체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대전 : 2위 37.6 (기존 : 37.5 / 1994. 7. 23.)

- **8. 20.** 8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대전 : 1위 37.6 (기존 : 37.3 / 2016. 8. 19.)

31

알면 돈이 되는 깨알 tip

민원 신청방법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 · 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민원신청방법

1. **일반민원**
   기상현상 증명과 기상자료제공에 대하여 민원실에서 방문 · 우편 · 전화 · FAX · E-mail의 방법으로 접수 · 처리하는 민원

1 민원인 신청 → 2 담당자 접수 및 처리 → 3 민원인 수수료 납부 → 4 담당자 발급 → 5 민원인 수령

tip 민원인은 각 서식의 해당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 → 담당자가 민원 접수 및 처리 → 민원인은 민원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 → 민원 발급 및 수령

2. 전자민원
   기상현상 증명과 기상자료제공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설치된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ma.go.kr)를 통하여 접수 · 처리하는 민원

1 민원인 신청 → 2 민원인 발급

tip 민원인은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ma.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민원 신청을 하시면 2015년 8월 7일부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즉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2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신청가능

대전지방기상청 체험학습

체험학습 소개

○ 대전지방기상청은 대덕연구단지에 자리잡고 있어 청사 주변에는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 등 관람시설이 있음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 중학교 학생 수준의 체험학습 가능

○ 기상홍보관은 본관 3층에 위치

기상업무전시실
일기예보의 생산과정 및 기후변화에 대한 안내

기상역사전시실
기상관측 역사 및 대전지방기상청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

날씨방송체험실
기상캐스터 체험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기상장비전시실
현재날씨를 관측하는 관측 장비를 실물로 비치

체험학습 신청방법

○ 개인, 단체 모두 가능하며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담당 주무관 또는 기상해설사에게 전화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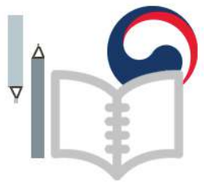
- 기후서비스과 교육 · 홍보 담당 주무관 : 070-7850-4164
- 기상 해설사 : 070-7850-4150

33

2016년 대전지방기상청

교육 일정

다양한 교육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제목	대상
1월	6/13/20/27일	2015-16년도 겨울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교 고학년
3월	26일	가족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이야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구성원
4월	9/10일	대국민 기상교육(지역축전)	초등학생 이상
5월		대국민 기상교육(기상청 직업체험)	중 · 고등학생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 · 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6월		기상정보활용과정	일반인 및 단체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 · 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7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 · 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8월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주니어닥터 연계)	초등학생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 · 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9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 · 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10월		학교와 나누는 기상기후정보교실	대전 외곽지역의 초등학생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 · 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11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 · 고등학생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초등학생

* 문의: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070-7850-4164)
*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